

“제주, 코로나 위기 넘어 새 기회 맞을 것”

민선 7기 하반기 도정 방역·민생경제 보호에 중점 한국판 뉴딜-녹색·4차산업 연계 전국 투자 유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맞물려 제주의 미래성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4일 도청 탐라홀에서 ‘민선7기 2주년 성과 및 하반기 도정운영 방향’ 주제의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보호를 당면 중점과제로 삼아 제주의 청정도와 안전, 공정관광의 브랜드까지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도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전국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국경수준의 방역체계 가동으로 현재까지 지역감염 제로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특히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와 관련해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제주의 카본프리 녹색산업과 4차 산업과 연결된 비대면 산업의 전국적인 투자와 연결시켜야 한다”면서 “제주의 미래

산업 분야와 기존 산업을 변화시켜 나가는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넘고, 제주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오는 2022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제주도정의 가장 큰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이며, 청정제주의 근본가치를 지키기 위해 난개발 방지와 함께 고성장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낸 환경 수용능력 보강을 위해 원천비대면 산업의 전국적인 투자와 연결시켜야 한다”면서 “제주의 미래

증대와 미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자리 정책,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드론 등 미래 산업 육성과 제주형 인력 양성을 위해 전략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각 부서별로 민선7기 하반기 주요 과제로 ▷코로나19 대응형 대비 방역 구축 ▷재난 안전 종합 컨트롤 강화 ▷제주관광 단계적 회복 추진 ▷그린뉴딜과 연계한 CFI 제주 추진 ▷제주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추진 ▷중앙부처 절충 ▷2020 하반기 도정 운영방향 등을 보고했다.

백영탁기자 haru@ihalla.com

해설 한국판 뉴딜, 무엇이 담겼나

2025년까지 160조원 쏟아붓는 정부 일자리 190만개 만들고 안전망 강화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한국판 뉴딜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 114조1000억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20조7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효율화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킴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디지털·그린·사회안전망 3대 축 중심 프로젝트 제시

데이터 댐 구축 등 대표과제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삼았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개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회귀 난치병에 따라 제주도정 전반의 정책기준과 정책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중장기 정책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38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강성민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제대로 된 정책처방이 가능하다”며 “민생경제의 기반을 다지면서 뉴노멀 시대의 준비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킴 ▷디지털 트윈 등을 제시했다.

제주시 국회의원 간담회 16일 오영훈·20일 송재호

제주시는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오는 16일(오영훈 의원)과 20일(송재호 의원)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시는 ▷제주보육원 개축공사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제주시 재활용과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송당지구 배수개선사업 ▷도두사수항 정비사업 ▷제2도시우회도로(변영로-삼화지구) 개설 등 7건에 대한 국비 확보의 시급성과 확대 지원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파도 치는 제주바다 14일 제주시 애월읍 구림리 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 바다의 정취를 느끼고 있다. 강희만기자

지방도 굴다리 안전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도 통로암거(굴다리)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도로 밑으로 자동차나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설치한 구조물인 굴다리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지방도 7개 노선 46개소(2연암거 6개소, 1연암거 40개소)이며, 기간은 지난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주요 점검 사항은 ▷통로암거의 안전성 여부 ▷벽체 및 천정, 날개벽(측면콘크리트) 등 콘크리트의 균열 및 변형 여부 ▷콘크리트 파손, 떨어짐, 철근 노출, 노화, 백화현상 여부 등이다.

이태윤기자

제주도의회 ‘코로나특위’ 시동

강성민 의원 결의안 발의 도정 정책 방향 등 점검

제주자치도의회가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은 제11대 의회 후반기의 첫 특별위원회로 출범하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 위원장에 내정됐다.

결의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오영희 원내대표, 희망제주 오대익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생당 한영진 의원, 정의당 고은실 의원, 무소속 안창남 의원과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등 총 8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산업·문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제주도정 전반의 정책기준과 정책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중장기 정책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38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강성민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제대로 된 정책처방이 가능하다”며 “민생경제의 기반을 다지면서 뉴노멀 시대의 준비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미니향 - 적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 제라온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국내산 레몬)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감, 탐나는봉

가정원에(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나몬, 탕자묘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1,3년생
감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유라실생	3,4년생
빙자묘	1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레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레조생
- 원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회분)
- 궁천변이지
- 천천(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